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케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망공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머리 만질’ 생각 분석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동선을 보면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당일 오전 중, 즉 선체가 가라앉을 때 박근혜는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아침 11시23분쯤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서도 침묵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후 들어 박근혜는 전속 미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려 90분간 머리를 손질합니다. 청와대는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고 변명했지만 머리를 한 사실만은 인정했습니다.

1991년 겨울 제 아버지가 담임하던 교회에 늦은 밤 누전으로 불이 나 예배당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옷차림은 잠옷에 점퍼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지도자라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머리를 하다니, 놀라는 정도를 넘어 이젠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심산이었겠지요. 뭘 했지는 모르나 점심나절 눈을 뜹니다. 하지만 사태를 주도적으로 수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 다음 의전 수순을 떠올리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이니 만큼 외모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니까”라는 아닌 밤중에 똥판지같은 말을 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섭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남몰래 할 일이 있었겠지”라며 7시간, 머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마저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게 됐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직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친박 모두 지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탄핵되면 한국의 누구와 외교 문제를 상의해야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탄핵안 가결이 상습입니다.

시민혁명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완수까지는 멀었습니다. 우리의 달성할 목표는 국가권력이 흥기가 아닌 시민의 이기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치지 말고 일상으로 숨지 말고 새 나라 새 세상까지 힘차게 정진합시다. 무너진 나라는 지도자 몇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8일(목) 1부 | 친박도 탄핵 찬성 도미노...최대 250표 예상도

[오프닝] '세월호 7시간'에 머리 할 생각이 가능한 두뇌 분석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80% 육박 "차, 사토해야"...60% 이상 "7시간 탄핵 이유 돼"
- 청와대 반입된 마약류에 의료계 "뜨악"...중독 의심까지
- 국회 내일 차탄핵안 투표...찬성표 최대 250표 전망도
- 차은택 "최순실과 대통령,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증언
- "대통령 옷값 최순실이 냈다"...박근혜 뇌물죄도 추가
- 고영태 최순실 '개싸움'에서 국정농단 게이트가 열렸다
- 거짓말처럼 사라진 유커... 상인들 "문 열기 겁난다"

[뉴스듣기능력평가] 사불법정, 인과응보, 중두독두와 같은...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갈수록 우경화돼 가는 유럽...교황 "지도자다운 지도자 없어"
- 박근혜 참석 의지 밝힌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될 위기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제 지킬 유일 해법은?
- 삼성 미래전략실과 전경련 해체에 나선 재벌, 과연...
- [공화국 논평] '연쇄폭로범' 고영태에 대한 중대 조치

탄핵 정국

CBS 더 높아진 탄핵여론, 탄핵 찬성 78%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결과부터 본다. 리얼미터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조사한 결과.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지난주 조사에 비해 탄핵하자, 하야하라, 이런 찬성 응답은 2.9%p 올랐다. 78.2%, 그런데 매우 찬성은 63.8%나 됐다. 한편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넣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야당과 비박 사이에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지? 이번 조사 결과,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7.4%였다. '그게 왜 들어가냐'는 응답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 아침 10시 이후에는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온다.

news1 靑 반입 마약류 보니 중독자용

청와대가 8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처방한 것에 의료계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이 소수에만 집중 처방됐다면 '중독'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처방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암환자 등 중증 통증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까지 처방된 것은 논란이 가중된다. 해당 마약들은 미국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는 중독성 약물이다. 뉴스1 보도다. 늘 주장했지만 특검은 박근혜를 부르자마자 피검사와 머리카락 검사, 소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 마약중독자라면 수사의 출발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지.

한국일보 朴 탄핵안, 찬성 최대 250표 전망

내일로 다가온 탄핵안 투표에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결정함에 따라 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는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오히려 여권의 탄핵 찬성이 50표를 밑돌 경우 촛불민심이 새누리당을 겨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찬성이 200표를 간신히 웃도는 것에서 최대 250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내일 여의도에서 김용민 브리핑 공개방송

한겨레 “친박 초재선도 여론 압박에 찬성”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도 목살하겠다, 이랬지? 이에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 친박계 의원은 “탄핵하라는 지역 여론의 압박이 거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박계 ‘핵심’을 제외한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를 한겨레가 전했다.

분노한 민심

한겨레 “침몰 중 올림머리라니” 분노 폭발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장시간 머리를 단장한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어제 2부에서 들으셨던 대로 단원고 희생자인 최진혁군 어머니 고영희씨는 “그날 저는 눈곱도 안 떼고 학교로 뛰어갔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도 “그 중요한 시간에 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라고 말했다. 온 국민, 치미는 분노를 감당 못했던 어제 하루였다.

경향신문 오늘 내일 촛불로 국회 에워싼다

내일 국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촛불’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4시간 동안 국회에서 1차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차 토론회는 내일 낮 1시30분부터 본회의 폐회 때까지 진행된다. 또한 이틀간 국회를 에워싼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朝鮮日報 차은택 “최순실·박근혜 동급”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최순실의 '영향력'이 가늠되고 있다. 차은택은 최순실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최순실과 대통령이 거의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이 말, 조선일보 1면 제목이다.

朝鮮日報 고영태 “김종? 최순실 몸종”

이어 또 조선일보 보도, 고영태는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소개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한 번 만난 일이 있다”라면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이렇게 증언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다.

힌겨레 “차 옷값 최순실이 내” 뇌물죄 확인

고영태는 대통령 박근혜에게 가방과 옷 100여벌을 만들어줬는데 그 비용은 모두 최순실이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이로써 박근혜에게 뇌물 혐의를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옷을 상납받은 대가로 최순실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줘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를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힌겨레 국정농단도 비망록도 잡아떼는 기준

계속해서 청문회 관련 보도, 박근혜 정권 전반기 최고의 실세이자 ‘왕실장’이라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섰다. 그는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모든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담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잡아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기와 해산할 것이라는 결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루머”라고 주장했다.

東亞日報 기준, 최순실 이름도 모른다 위증

또 하나의 뷰 포인트였지? 청문회 내내 일관되게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김기춘의 주장이 12시간 만에 무너졌다. 밤 10시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엔 최순실 관련 대목이 나오고, 그 자리엔 김기춘이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자 김기춘은 “최순실 이름을 모른다고 한 건 바로잡겠다. 하지만 접촉한 일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중잉일보 파문 시작에 정유라 개가 있어

고영태는 2년 전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다 뒀다”고 말했다. 정유라가 키우던 강아지를 잠깐 맡아줬는데 최순실이 강아지를 찾으러 왔을 때 고영태가 자리를 비우고 없자, 이에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때 최순실과 사이가 벌어진 고영태는 대통령의 옷을 만들던 자신의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공격’을 준비했다. 그 주장대로라면 최순실 사태의 발단은 ‘정유라 개’다.

중잉일보 “靑 경찰관 양심고백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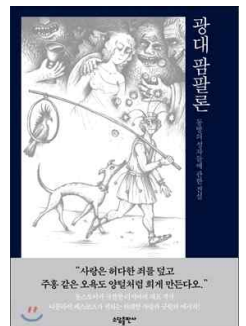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사 2명이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당일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고 했지? 위증을 한 것이다. 이에 국회는 오는 16일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구성순 경찰관이 박근혜의 행적을 알 것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 구성순 경찰관이 양심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 최광, 홍완선 연임 반대하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퇴임한 최광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한 것이 일의 발단인 것 같다”라고도 밝혔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할지 결정하던 시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인물이지? 그 직후 홍완선 본부장은 내부 투자 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최광 당시 이사장은 홍완선 본부장에게 신중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연임에 반대했었다. 그러다 본인이 물 먹었지.

.....

오늘을 읽는 책
니콜라이 레스코프 | 광대 팜팔론



박근혜 외교의 결과

'서울신문' 中 관광객, 석 달 간 25% 줄어

사드 도입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명동과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동대문 상인들은 한달 전부터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는 옷 보따리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며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35%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명동 상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거짓말처럼 중국인들이 방문하지 않아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25% 가량 줄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탄핵 앞둔 새누리당 의원들께”

한겨레 정석구 편집인 칼럼이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부결되면 더 불행한 방식으로 끌려 내려올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지만 촛불 민심이 그리되도록 놔둘 리 없다. 300여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1시간이 넘도록 울림머리나 가다듬고 있었다는, 인간이기조차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에 대해 언급할 일도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쪽은 이른바 보수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편이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라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일제 부역자와 군사독재의 후예들, 그리고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룬 수구기득권 정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극우 색깔과 영남 지역주의까지 더해지면서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국민 경제를 거덜 내는 데 일조하는 패거리 정당이 돼 버렸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1차 시금석은 박 대통령 탄핵이다.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의 끊임없는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당이 분열되면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야당에 헌납하게 된다고 어르고, 당 지도부는 비박들을 향해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으박지를지 모른다.

사실 국민은 박근혜 국정 농단을 보면서 새누리당도 완전히 포기했다.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과거처럼 적당히 분칠이나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들 경우, 이번 대선뿐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정권 잡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누리당 혁신 작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부결되거나 근소한 표차로 가결되면 당내 수구기득권 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선택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달려 있다.

트랙터 앞세우고 민중과 함께! **가자 청와대로!**
전봉준 투쟁단
2차 궐기
 2016년 12월 8, 9, 10일(2박3일) 평택에서 서울로
 8일 오후1시 평택시청 앞 출정식 / 오후7시 수원역 촛불집회
 9일 오전 수원출발~여의도 국회의원시장
 10일 오전11시 전경기념관 앞(삼각지역)~광화문광장 행진

참기문의 및 안내 : 02_529_6347 / nongsa0424@gmail.com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탄핵릴레이 라이브"

〈시간〉
12.8(목)
 늦은 8시~ 계속(12.9 새벽 1시까지 예결)

〈장소〉
 여의도 국회의원시장 정문 앞

특별스님
이재명 성남시장

*원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12.8(목) 늦은 9시부터~12.9(금) 새벽 1시까지 릴레이 라이브 참여당 국민을 모집합니다.